



**순종 어진** 純宗御眞 Portrait of King Sunjong  
순종 사진을 보고 그린 어진이다. 순종어진은 면류관을 쓰고 십이장복을 입은 대례복(大禮服) 차림이다. 의례를 행할 때 황제는 십이장복을 입고, 왕은 구장복을 입었다. 십이장복이란 옷에 들어가는 문양의 수가 12가지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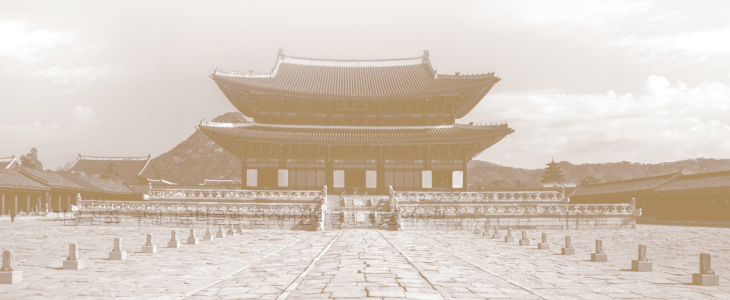


**순종** (純宗, 재위 1907~1910)으로 추정되는 어진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1954년 보관창고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곤룡포 부분은 절반 이상 남아있으나 얼굴 부분은 거의 소실되었을 뿐 아니라 화면의 오른쪽이 불에 타버려 표제를 확인할 수 없어 주인공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당시 황제의 자리에 있던 고종은 황룡포를 입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 어진은 황태자의 신분으로 그려진 순종의 어진(당시에는 예진)으로 볼 수 있다.



### 조선왕조 어진

어진은 왕의 초상화이다. 어용(御用), 왕상(王像), 어영(御影), 진용(眞容), 진(眞), 수용(曄容), 성용(聖容), 영자(影子), 영정(影幀) 등의 용어로도 불린다. 어진은 삼국시대 이래 면면히 제작되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어진은 모두 조선시대의 것이다. 조선시대에 어진은 왕실 조상을 추모하는 동시에 국왕의 정통성과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했다. 왕의 초상화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았고, 국왕 그 자체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어진의 제작과 봉안은 매우 중요한 왕실 행사였고, 매우 까다로운 의례가 뒤따랐다. 이러한 어진은 당대 최고의 화원만이 그릴 수 있었으며, 진전에 봉안할 때에도 엄숙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는 조종이 영구하기를 꾀하여 왕실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 왕의 귀환

### 태조 이성계 어진 제작 발표회

조선왕조 오백 년의 문을 연  
태조 이성계의 위엄과 기상이,  
의정부에서 다시 살아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빈 화폭 위에  
태조의 위엄과 정신을 담아낼  
그 순간을 앞두고,

어진 제작에 숨겨진  
역사적 고증과 장인의 손길이,  
역사의 숨결로 살아나는 순간과  
그 가치를 느끼는 시간



1. 어진이란?
2. 태조 어진의 역사 소개
3. 태조 어진 제작 과정 소개



**일 시** 2025. 9. 23. (화) 16시

**장 소** 의정부문화역-이음 이음갤러리

**강연자** 영정 및 인물 초상화 전문 화가

# 태조를 그리다 조선의 시작 어진의 탄생

조선왕조 전국 어진 레플리카展



**2025. 9.16(화)~10.4(토)**  
**10:00~18:00**

의정부문화역 이음 이음갤러리  
(의정부역 4층)